

韓 GDP 1.2%, OECD 3위 올라 “회복세 뚜렷… 내년 개선폭 확대”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뒤이어
일본 -0.4%로 최하위로 밀려
이탈리아 0%, 캐나다 0.1% 그쳐

우리나라가 실로 오랜만에 경제성장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분기별 성장 비교이고 아직 올해 3분기 수치의 취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를 달리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는 중간순위 1위다.

23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와 비교해 1.2% 증가했다. 1%를 넘는 국가는 4곳뿐인데 이스라엘(3.0%), 코스타리카(1.3%)에 이어 한국이 3위, 스웨덴(1.1%)이 4위에 자리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까지 26개국 수치가 공개됐다. 이 중 일본(-0.4%)이 최하위로 처지는 등 경기가 2분기에 비해 후퇴한 국가가 6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에 크게 앞섰다. 일본 역 성장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0.0%로 제자리걸음 했고, 캐나다와 영국 GDP도 각각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위권에서도 멕시코 -0.3%, 네덜란드 0.4% 등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국가 평균은 0.2%였다.

1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경우, 직전 분기 역성장(-1.1%)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2분기 0.7% 성장에 이어 3분기에 1.2%로 GDP 증가세가 더 뛰었다. 경제규모 20위권 박인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한국 성장률이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컸다.

이밖에 프랑스 경제가 0.5%, 스페인이 0.6%, 포르투갈이 0.8% 성장했다. 미국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G20 협의체 중에서도 중국(1.1%)을 넘어서며 인도네시아(경제 규모 세계 16위)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이날 기준 총 19개국 가운데 10곳이 3분기 수치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2022년부터 최근 15개 분기 동안 1%대 성장이 총 2회(이번 분기 포함)에 불과했다. 역성장이 3회(2022년 4분기, 2024년 2분기, 2025년 1분기)나 됐고 일본에도 여러 번 뒤졌다.

국내외 각 기구·기관은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1% 미만을 예측하는 곳도 많았다. 1분기(-0.2%) 경제가 뒷걸음질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 등에 따라 다소 회의적인 관측이 그간 우세했다.

하지만 2, 3분기 연속 호조에 따라 4분기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보다 나은 수치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1% 선은 무난히 지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이 일부 낙관론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3분기 GDP 속보치(1.2%)가 한국은행의 예측치(1.1%)를 넘어선 데 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고 반도체 등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구·기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언론 설명회를 갖고,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선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KOSPO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가운데), 김경민 AIDigital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협약기관 대표 및 예비창업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남부발전, AI 혁신기업 창업·사업화 지원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AI 혁신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혁신 벤처기업의 서비스 사업화와 창업 창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피로도

진단 AI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AI 기반의 민·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역 AI 벤처기업인 망고클라우드, 나라인포테크 및 한국해양대와는 ‘AI 서비스 사업화 지원 협약’을, 지역 예비창업자(기업명 가칭 Solar PK) 4인과는 ‘창업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AI 산업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쓰는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를 비롯해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업체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 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

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일렉콘’ 개최

남동발전 ‘KOEN’팀 일반부 우승

한국전력은 지난 19일~20일까지 나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제5회 ELECCON(Electric sector Cyber CONtest, 이하 일렉콘)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렉콘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으로, 공격 1팀, 운영 1팀, 방어 32개팀으로

구성된다. 훈련은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이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기관 8개팀과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일반부 8개팀, 대학부 8개팀, 고등부 8개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LFP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나서

순환경제 신기술 3건 규제특례

정부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LFP 배터리에 맞는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식 인지도’ 베이징·자카르타 85% 최대

농식품부, 해외 한식소비자 조사
주요도시 평균 68.6%로 2.9%p↑
브라질 상파울루 44%, 로마 20%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중국 베이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인의 한식 인지도가 각각 85% 수준에 달한 반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는 50%대에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 선을 밑돌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외 한식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도시 22곳에서 현지인 각각 500명씩 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도시에서의 한식 ‘인지도’ 평균은 68.6%로, 전

년도(65.7%)에 비해 2.9%포인트(p) 올랐다. 도시별로 베트남 호치민(86.4%), 베이징(85.4%), 자카르타(84.8%), 싱가포르(80.2%) 등지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이에 반해 뉴욕과 도쿄 현지인의 인지도는 각각 59.6%, 54.0%에 머물렀다. 브라질 상파울루(44.4%)와 로마(19.6%)에선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75.6%)과 대만 타이베이(74.6%), 호주 시드니(69.0%) 등이 평균치인 68.6%를 조금 상회했다. 이 밖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67.6%, 영국 런던 64.8%, 프랑스 파리 62.4%, 멕시코 멕시코시티 61.6%, 독일 베를린 60.6% 등이다.

인지도는 ‘매우 잘 안다’와 ‘안다’, ‘아는 편이다’를 합한 비중이다.

현지인의 ‘한식당 만족도’의 경우,

런던(96.4%)과 베이징(96.4%), 뉴욕(96.3%)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쿄(72.2%), 로마(85.4%), 파리(87.5%) 등은 평균(93.1%)보다 낮았다.

최근 1년간 현지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1.7%로 나타났다. 한식당에 가 본 사람의 93.1%가 만족했고 이 중 90.7%는 다시 찾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7%, 한식을 먹어본 적 없지만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18.4%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올해 6월30일 기준 22개 도시에 거주하는 20세부터 59세 사이 현지인으로 월 1회 이상 외식 경험자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역난방공사,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

서울시·마포구청·마포경찰서 등 협력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난 21일 중앙지사 관내에서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체감형 안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중앙지사 관내 난지캠핑장에서 진행됐으며, 열수송관 파손으로 인한

증기 누출 상황을 가정했다. 서울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발생 시 현장 통제와 긴급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피 요령과 현장 통제 협조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난방 보조기구 배부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에 참여한 정용기 한난 사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유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1일 민관공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난

기관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시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견고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